

탈당사태에 경제현안 표류... 의료법 갈등·FTA 반발까지

한국 경제가 답답하다

이번달에는 국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핵 6차 회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협상이 열린다. 따라서 이들 대형 사안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국민적 지혜가 절실한 상황이다.

경제분야에서는 경기불안 신호가 뚜렷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부동산대책을 비롯한 현안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통과할지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의료법은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쟁기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한미 FTA 반대자들은 오는 11~14일 제7차 협상 개막을 계기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제 상황 답답= 우리 경제 상태가 불안하다는 신호는 비교적 뚜렷하다.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작년 12월 산업

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 증가율은 2.3%로 전달의 6.5%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쳤다. 전월보다는 3.9%나 줄어 11월(-1.4%)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하면서 작년 7월 이후 5개월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또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난 1월 매출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 입법 불투명= 그러나 정치계 혼란은 확대되고 있다. 열린우리당내 신당과 의원 23명이 6일 집단 탈당하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이합집산을 시작했다. 탈당 의원들은 앞으로 우리당.민

주당 뿐 아니라 대중적인 명망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연대와 영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계개편이 빨라지고 대선구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여당의 탈당사태는 곧바로 부동산정책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주도해온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을 위한 입법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지난 달말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법률안은 10여개

에 이른다"면서 "각종 부동산관련 제도 개선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본시장통합법·경제자유구역법·통계법·공정거래법·국가회계법 등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

특히 출생제 적용 기업집단 지정은 늦어도 오는 4월중순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아울러 한미FTA, 6차회담 등 초대형 이슈에 대해서도 국회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정부정책의 입법화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1당으로 부상한 한나라당이 정책을 주도해 처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사회적 갈등 우려= 사회적 갈등도 문제다. 서울시·인천시 의사회는 6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정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

의사들은 7일 울산과 광주에서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별로 잇따라 쟁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의사협회는 11일에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쟁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한미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1~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FTA 협상에 원정시위대를 파견기로 했다. 이들 원정대는 재미 교포단체와 미국의 산별노조총연맹 등 미국의 진보단체·노동단체와 연대해 삼보일배와 촛불집회 등의 방식으로 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충돌도 예상된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설 명절 앞둔 유통업체 선물 배송 '비상' 연휴기간 짧아 물량 몰려

유통업체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 배송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은 올해 설 연휴가 짧은 관계로 귀향하는 대신 선물을 고향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 배송물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배송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지난해보다 20% 정도 배송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배송아라이비트와 화물차 모집에 나서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배송물량이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9일부터 17일까지 본사 직원도 배달업무에 투입기로 했다.

현대백화점은 17일까지 e-슈퍼마켓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오후 4시 이전까지 e-슈퍼마켓(esuper.ehyundai.com)에서 정육, 청과, 냉동식품, 건식품 등 추천 선물세트 품목을 3만원 이상 주문하면 당일 배송을 완료한다.

인터넷쇼핑몰 롯데닷컴은 주문한 상품이 설 전에 도착하지 않으면 물건값을 받지 않는 책임 배송제를 실시한다.

오는 15일까지 설특선매장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전국 어디든지 추석 하루 전인 17일까지 배송해 주고,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물건값을 전액 환불해준다.

또 주문한 상품의 배송결과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주는 배송결과 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합뉴스

손보사 절반 차보험 손해율 80% 넘었다

지난해 12월까지 국내 손해보험사의 절반이 자동차보험에서 80%를 넘는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업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적정손해율이 72%인 것을 감안했을 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06년 회계연도 3분기 누적(4월~12월)으로 14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9.2%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5%포인트 높아졌다.

2005회계연도 총원수보험료 8조5천억원에 비해 손해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영업적자가 850억원씩 늘어나기 때문에 손해율 상승으로 2천125억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한 셈이다.

이 가운데 손해율 80%를 초과하는 업체는 7개 업체로 2005년도(3개사)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업체별로는 한화손해보험이 87.4%로 가장 높았고 흥국상용화재(86.8%), 다음다이렉트보험(83.2%)이 뒤를 이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을 비롯한 주요 4개 업체 중에서도 LIG손해보험과 동부화재가 83.1%와 81.6%의 손해율을 기록, 전년에 비해 각각 4.6%포인트와 6.3%포인트 높아졌다. /연합뉴스

신용회복 성실납부자 최대 3,000명에 100억 규모 신용대출

올해 신용회복지원 성실납부자 2천~3천명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소액신용대출이 실시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7일 신복위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사람 중 긴급생활안정자금에 필요한 사람들에 대상으로 올해 1인당 평균 300만~500만원씩 모두 2천~3천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13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신용회복지원 성실납부자 중 긴급생활안정자금에 필요한 33명에게 총 9천700만원을 대출했다.

신복위의 소액신용대출 지원은 농협과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7개 은행이 20억원씩 기부해 마련된 것으로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 중 병역비와 학자금, 재해복구비 등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된다. /연합뉴스



낭만적인 정원 가꾸보세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전국 홈텍스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토피어리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 평균 연봉 2,780만원

지난해 사무직-생산직 연봉차이 2배달해

지난해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2천78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무직 근로자 연봉이 생산직 근로자의 거의 2배에 달했고, 대학과 졸업 근로자의 연봉은 초등학교 졸업 근로자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근로자 가구의 가구 본인 월 평균 근로소득은 231만7천원으로 2005년 219만5천원에 비해 5.53% 증가했다.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2005년 2천635만원에서 2006년 2천780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003년 202만6천원에서 2004년 213만1천원, 2005년 219만5천원, 2006년 231만7천원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사무직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월 평균 310만5천원으로 2005년 296만2천원보다 4.81% 늘어났고 생산직은 2005년 162만3천원에서 2006년 171만3천원으로 5.54% 증가했다.

생산직과 사무직의 연봉은 2005년 각각 1천948만원과 3천555만원에서 2006년 2천555만원과 3천726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때 따라 생산직과 사무직의 연봉 격차는 2005년 1천607만원에서 2006년 1천678만원으로 벌어졌다.

학력별로는 대학을 졸업한 가구의 지난해 근로소득이 월 평균 319만3천원으로 2005년 300만1천원 대비 6.37% 늘어나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이어 고등학교 졸업은 2005년 207만2천원에서 2006년 215만3천원으로 3.86% 늘었고 중졸은 같은 기간 140만5천원에서 141만1천원으로 0.4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가구의 근로소득은 2005년 111만8천원에서 2006년 111만5천원으로 오히려 3.34% 감소했다. /연합뉴스



이들 연간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대출 3천831만원, 고졸 2천583만원, 중졸 1천693만원, 초졸 1천33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졸과 대졸 근로자의 연봉격차는 지난 2005년 2천260만원에서 2006년 2천494만원으로 확대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차 배출 오염 2만 감소 경제 가치 1,779억 달해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 품질을 개선한 결과 지난해 1년간 대기오염물질 2만500t을 감소시켰고 오염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 가치가 1천779억원에 이르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 연료 5천300여개 품질을 분석, 대기오염 저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료 품질 강화로 지난해 대기오염 물질이 전년 대비 최고 11.5%까지 감소했다.

2006년 연료품질이 강화돼 대기오염물질 중 일산화탄소 1만6천370t, 총탄화수소 1천621t, 미세먼지 1천168t, 질소산화물 1천341t 등 2만500t이 전년과 비교해 줄어 들었다.

개별 오염물질 감소에 따른 연간 사회적 편익의 가치는 일산화탄소 1천191억원, 총탄화수소 137억원, 미세먼지 334억원, 질소산화물 117억원 등이다.

소형 경유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는 10.9%, 총탄화수소는 11.5%, 미세먼지는 6.5%가 감소했고 휘발유 자동차는 일산화탄소가 2.6% 줄어 경유차의 저감효과가 비교적 컸다.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해 1.0% 이내로 그쳤다.

경유 황함량의 경우 제조 기준이 2005년 430ppm 이하에서 2006년 30ppm 이하로 1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강화돼 이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은 산성비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벤젠과 올레핀, 방향족화합물 등의 기준 등도 크게 개선됐다. /연합뉴스

"비정규직 차별금지조항 확대 해석엔 일자리 뺏는 독소조항 될 수도"

대한상의 노동부 등에 '경영계 입장' 건의

제·개정된 비정규직 보호 법률들에 따르면 기간제·단시간·과연근로자 등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되면 정규직의 모든 근로조건과 비교한 후 차별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조치를 행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만약 차별시정조치가 모든 근로조건에 광범위

하게 취해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차별금지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는 당초 입법 취지에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오히려 보호범위 밖으로 내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종·유사업무의 범위를 넓

게 보면 직군분리제 등을 실시하더라도 임금 또는 부가급여 등이 불리하다면 차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직군분리제 등 명확한 직무구분이 되어 있음에도 차별금지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과연근로자를 사용자 업무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대상으로 삼아 사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차별시정을 내리려는 것은 과연사업주와 사용자업주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현행 과연법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